

사도바울에게 주님께서 직접 주신 메세지인 이 로마서가 없다면 자, 그당시에 이방인 중의 이방인인 그 로마 사람들에게 한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까지도 알려주셔서 이 안에 있는 말씀이 바로 뼈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되는 것이고 말씀을 먹을 때, 바로 이것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아, 여기 오늘 몇절부터 하나하면, 8 절부터 하겠는데, 우리 하기전에, 6 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 절. 한번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을 입고 오셔서가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영과 혼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신겁니다. 일일이 다 부르신거예요. 집단으로 부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렀어요. 부를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요.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해주셨는지 모르게 되면, 참 삶이 초점이 없어지게 되고 목적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8 절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짐이라.]** 여러분 옛날에 커바 디스 도미네란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막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들이 같이 매달려서 다 불에 훨훨 타고있는데,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보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화를 통해서 다 알려졌습니다. 로마에 있던 성도들 옛날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 놓고서 자기가 책임을 회피 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불을 질러 댔다 하고서 그냥 온갖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 가지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죽였죠. 크리스찬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막 사자에게 찢어 죽이고 그랬죠. 그럴때도 이그나 투스란 사람은 사자 보고 나를 빨리 먹으라고 나를 빨리 먹되 발 부터 먹지 말고 내 머리 부터 뜯어 먹으라고, 그래야만 내가 빨리 주님을 만난다고. 꺄꺄꺄 웃으면서.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 알려졌다고요. 왜냐? 이 복음을 받아 들인 사람의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런 능력이예요. 누구나 받아 드리면. 제가 자꾸 생각 하는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때 하늘도 땅도 물도 다 순종했죠. 순종했다가 받아 들인거죠. 받아 들으니까 받아 들이면 하늘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땅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땅 속에도 말씀이 이루어지고 물 속에도 말씀이 이루어져서

창조물들도 생겼잖아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받아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 말씀을 안 받아드리려해요.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내 마음을 준비하고 와야되죠. 완전히 받아들여가지고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을 영접하는데 말씀을 영접하는거예요. 예수님도 말씀 이잖아요. 말씀을 영접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결국 다 뺏기고 말죠. 이 로마 사람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우리에게 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죠. 9 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니 나의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너희를 말하며]** 여기 사도바울이 나의 영이라 그러합니다. 영에는 네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고. 짐승의 영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전도서 4 장을 보시면. 우리가 옛날에 잘 못 알았던게 있는데 전도서 3 장 21 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이렇게 되었는데 개역성경에는 이 번역이 잘 못 된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도 슬퍼 하기도 하고 기뻐 하기도 해요. 영이런 것은 감정을 나타내는 기관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도 하나님을 보고. 찬송 하고. 새들도 하나님을 찬송 합니다. 산천초목이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경배 한다고 그랬어요. 짐승들이 여기 있어요. 슬퍼하기도 해요. 소가 막 그냥 푸죽간에 끌려 가게 될때면 슬피 울어요. 제가 어릴때 집 근처에 도살장이 있었는데 소들이 가면서 거품을 내면서 우우~ 하고 울어요. 항상 그걸 봤어요 제가 어릴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무거우면 안돼요. 영이 가벼워야 돼요. 영이 가벼워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마귀의 영, 짐승의 영 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바울은 "나의 영이라" 인간의 영이죠.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나의 증인이시니 나의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너희를 말하며" 저번에 우리가 미국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에 쉬지 않는다.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는 분명히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정부에서 영장이 나온거예요. 영장이 나왔다고.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교회를 갔더니 어떤 자매가 오더니 당신 위해 10 일을 기도 했는데, 당신 절대 군대 안간다고. it's done. finished" 그러더라는거예요. 군대 안간다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왜 군대 가냐고 말이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영장이 나왔는데. 어떤 자매가 이 목사님이 부름 받았기 때문에 10 일 동안 기도했대요. 쉬지 않고 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갔어요 이분이. 군대 안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하면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된다.

우리가 사실 멕시코도 가고 뭐 여기 저기 다니지만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 해야되는거예요. 가장 가깝게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된다. 기도 한것은 분명히 응답은 됐는데 내려 오는게 늦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도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했다.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기도 하지 않은게 사실 죄입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 기도는. 크리스찬들은 뭐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것 뿐만 아니라 차 타면서도 기도 하고 자면서도 기도 하고. 호흡처럼 해야되는거예요. 기도. 기도가 없으면 기도로 하루가 연결 되지 않으면은 금방 마귀의 공격을 받아 가지고 낙심 하는거예요. 왜 이렇게 요즘에 우울증이 많습니까? 기도를 안해서 그런겁니다. 기도 하게 되면 항상 연결이 되죠. 기도를 딱 쉬게 되면은 벌써 마귀에게, 뭐 사탄으로 꽂찬 세상인데.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으로 꽂 차있는데 내가 입을 벌려 기도 안하면 기도줄이 끊어 지면 그냥 들어 오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전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 했습니다. 왜그렇습니까? 사도바울의 영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산 영은 기도해요. 죽은 영은 기도 안하죠. 산 영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산 영은 하나님을 볼뿐만 아니라 또 사탄의 영을 보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살아 있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이지만, 옛날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생명을 영접할 때 영이 거듭난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한테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왕국)를 볼 수 없다.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왕국)에 들어 갈 수 없다. 그건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는 그 때 당시엔 교인이예요. 성경 잘아는 교인인데 이 사람은 거듭 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영이 살았다면 나도 하나님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라고까지 말 할 수 있어야 되요. 사람 볼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항상 너희를 말했다. 말했다. 우리 기도 하는게 말이죠 뭐 별게 아닙니다. 해 주시옵소서 기도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우리 한번 빌립보서 찾아 보겠습니다. 기도란게 간단 한거예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들 생각 하는데 기도는 너무 간단 한거예요. 빌립보서 4 장 6 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왜 감사함으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을 알려야 해요. 그냥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미루지 말고 빨리 빨리 해야되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알려지게 해야되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아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걸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저절로 된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기도가 될거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축복을 받을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왜 기도를 통해 그러느냐? 하나님의 자녀들만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거지, 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다 아시는데 뭘 기도 하라 그래? 꼭 기도 해야되나? 그게 아니라고요. 왜? 내 자식한테 줄거 내가 어디 뭐 숨겨 놓고 내 자식한테 주고 싶어 하지 열어 놓고 누구나 다 가져가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 하기만 하면은 주실걸 믿으라. 알려지게 하라. 기도는 알려지게 하는겁니다. 알려지게 하는거. 간단 한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만 하면 되는거예요. 보고만. 근데 이거를 믿음이 없이는 못 하죠. 보고를 합시다. 계속 쉬지 않고 생각이 나면 그냥 보고 합시다. 생각 나면. 그게 여러분 성령께서 생각 나게 할때 빨리 빨리 얘기해야 되요. 미루면 안돼요. 그리고 생각 나게 할 때 기도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하면 찾아가야 되고. 순종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 하는 사람을 쓰거든요. 어제도 그 어떤 그 성도 한분이 와가지고 미팅에 참석 했고 오늘도 예배 참석했는데 미국분들이 참 좋은게 뭔가하면 어린 애 같애요. 어제 제 옆에서 찬양을 하는 자매님이 찬양을 하는데 어린 애 같애요. 어린 애 같이 이러면서 막 그 나이도 많은 분이. 어린 애 같애요. 너무 끌어 안고 싶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저렇게 찬양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너무 점잖아. 하나님 앞에서 점잔빼면 뭐 합니까? 어린 애 같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거듭 나고서 부흥회를 하는데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끝나고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나와서 울동할 사람 나오래요. 제가 제일 먼저 나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장로님도 나오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좋은거예요. 찬송 할 때 누가 봅니까? 주님이 보시는데. 옆에 사람 볼 거 없어요. 찬양, 우리가 예배 할 때 찬양을 드리잖아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입니다. 아멘. 내가 힘들고 뻘뻘 해질 수록 더 열심히 해야되 그래야만 더 기쁜거 아니에요? 아까도 미국 교회에서 찬양 하는데 trade in. 내 슬픔도 갖다 주고 기쁨으로 바꾸고 문제도 갖다 주고 기쁨으로 바꾸고. 아니 세상에 공짜로 할 수 있는게 어딴어요? 자동차 다 헛거 되면 어떡해요? trade in 하잖아요. trade in. trade in 하라. 걱정 근심 뭐 depression 뭐 이런거 뭐 슬픔 전부 갖다 드리고 대신 기쁨으로 받아 가라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거든요.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는게 찬송이 아니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다 드리면서 받아요 이게 찬송이예요. 주님은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주님은 giver 고 우리는 receiver 에요. 주님은 항상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받는 사람이예요. 근데 한국 분들이 너무 점잖아요. 아이 어떡해 내가 받아 받기는. 그러나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까도 미국 교회에서도 야곱이 죽어라고 달라고 했잖아요. 축복을 안 하면 당신 못 간다고 하나님 붙잡고 늘어졌지 않습니까.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잖아요. 우리가 너무 점잖으면 안되거든요. 어린 애 같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어린 애 같은 자에게 이것들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선교사님 찬송 하는거 보세요 언제. 진짜 어린 애 같이 잘 하신다고. 선교사님 찬송 하실 때 보면 막 뛰신다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왜 안그래요? 여러분이 안하니까 안 뛰지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아아아아아 이러신다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가 지금 뭐 이 중에서 둘째 아니야 둘째. 둘째라고 사실 이 선생님 다음으로 연장 자신데 앞으로 우리 선교사님 좀 앞으로 나와 가지고 찬송 할 때 같이 좀 하셔야 겠어요. 다 보고 그렇게 하게. 아이고 점잔 떨게 어딴어요. 그렇게 연세 든 분이 그렇게 하는데 뭐. 너무 그럴거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못 만나고 가면은 일주일 동안을 그냥 가는거예요. 슬픔으로 또 가는거야. 주일날 와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아 살아 계시는 주님을 왜 못 만나요? 살아 있는 사람은 만나는데. 왜 살아 계신 하나님은 못 만납니까? 그 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안에서 찬양하고 영 안에서 기도하고 간절히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어떻게? 만나 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네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을 볼 때 주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들은 대개 보면 그래요 목사 설교 들으러 온다 그래요. 설교 들으려고 주일날 오는게 아니예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거지. 그럴 때 메세지는 그냥 나가는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나가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이 모든걸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받고 이렇게 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 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때 기쁨이 넘치게 되면 처음 오신 분들이 그 기쁨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같은 기쁨에 들어 갑니다. 우리가 굳어 있게 되면 같이 굳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도바울이 나의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너희를 말했다. 중단하지 않은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중단 하지 맙시다. 쉽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에게 나아갈 형통한 여정을 갖게되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고싶어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사도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간절히 원하는데 그게 잘 안됐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가기를 원하는 목적은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붙잡고 기도를 하고 서로 대화 할 때 나에게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목사님들이 안수 받을때 왜 안수를 하는가 하면 한 분이 안수를 받을 때 여러 목사님들 다른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이 손을 영켜 기도 할 때 그 은사들이 그에게 나누어 주는거죠. 영어로 impart 입니다. impart. 나누어 주는거. 그래서 저도 어디를 가던지 제가 받은 은사 제가 받은 복음 전파자의 은사를 나누어 줍니다. 손을 얹을 때 그 은사가 가는거예요. 그럼 그들도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아주 감사하죠. 저희가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뭐 흑인 목사님 백인 목사님 뭐 각 종 인종 목사님들이 다 모이는 pastor network 인데 거기에 흑인 목사님들 중에 Jackson 목사라고 있어요. Jackson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여기서 rehab center 를 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전혀 옛날에는 이 복음 전도자의 영이 없었어요. 그 은사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날 갑자기 간증을 하는데 아 저기 중국 가가지고 설교를 했다는거예요. 아이 중국 가서 설교를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나고 난리가 난거야. 아 그래서 너무 좋아 하는거예요. 왜? 거기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같이 손 붙잡고 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손 붙잡고 기도 하다 보니까 전도자 영이 그분께로 가는거예요. 이 분이 분명히 간절히 소망 했을 거예요. 한국도 간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흑인 목사가 한국에 가신다니 내가 통역 해준다 그랬죠. 전혀 이분은 복음 전도자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렇게 된거예요. 영이 들어가니까 복음 전도자의 은사가 들어 가니까 그렇게 된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무 토막 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사만 들어가면 쓰임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되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왜 모였느냐. 우리 한번 에베소서 4 장 보겠습니다. 서로 모여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또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많은가. 이유를 알아야 되요. 목사님들의 모든 은사들을 여러분이 전부 가지면 됩니다. 아멘? 다 가지셔야 되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 장. 아 우리 교회 처럼 숫자에 비해서 목사님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다섯 명인데. 여러분들이 그 benefit 을 다 취하지 못하면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더 사람들이 와서 취하기 전에 먼저 취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 장 11 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을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며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 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니 우리 온누리 복음 교회가, 모든 족속을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 가지고, 뭐 처음에 알았나요. 억지로 막 길에 끌고 나가니까 우리 김광만 장로님, 우리 서목사님도 있지만은 막 길에 계속 끌고 나가니까 나중에는 자기들도 막 설교 하더라고요. 설교해요. 이 김광만 장로님은 어머니 병원에 잠깐 치료 받는 사이에 잠깐 나와 가지고 올림픽 길바닥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랬다고요. 이게 뭐냐 영이 감염 되는거예요. 감기도 잘 감염되는 판에 하나님의 은사가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왜 안되겠습니까? 감기는 원하지 않아도 와요. 감기는 원하지 않아도 오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옵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그 귀한거 써먹지도 않으면 누가 손해 봅니까? 하나님이 손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손해 보는 분이 아니거든요.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합니다. 사모하는 혼을 만족케 합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거는 주님이 주신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데 그 위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윗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7 절 보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갔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주님이 부활하여 올라 가실 때 누굴 데려 갔느냐? 구약 성도들, 잠 자는 성도들을 부활시켜 가지고 하늘로 올라 갔어요. 이게 첫 번째 휴거 입니다.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었다 교회에게.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 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부터,]** 이게 어딴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까지 내려 가셨어요 주님이.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 가셨다는것이 아니고 무엇이나? 내려 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 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아멘. 이 지옥으로부터 하늘까지 가서 가지고 하늘과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줘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 선물로 정말 충만케 하는겁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다 이겨 버리고 주의 충만하심이 있게 하는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거예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기도 할 때는 하늘까지 뚫고 올라가서 하늘 보좌 까지 상달되기 때문에 찬양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 할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옛날에 사탄 때문에 완전히 타락된 하늘과 땅과 땅 속에 지옥까지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이 위에서 밑에 까지 내려가서 다시 잡아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은사를 줘서. 그러나 주님이 이제 재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직접 하는거죠.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많은 은사를 사모해서 받아 가지고 주님의 몸을 섬겨야 되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는 목적은 뭘니까?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내가 붙잡고 기도 해주면 내 은사가 또 가는거예요. 그래 가지고 성도들이 온전해지는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기도해 주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은사로 가득차게 되면 보는 사람마다 그게 impart 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요. 앞으로 죽어서만 천국 가는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사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그래요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은사가 없으면 안돼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없으면 못하는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죠. 많이 들었는데 입이 없으면 말 못하는거랑 똑같은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파하는 수단이라고요. 그래서 구해야 되는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왜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는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주게 되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거예요. 손 없으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풍성한 그리스찬의 삶을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은사가 너무 없으면 사람이 매 말라 보여요. 별로 기쁨이 없어요.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한국 교회 문제가 뭔가하면 은사를 주면 잘 못 사용해요. 은사는 교회에 있는 몸을 섬기라는거지 자기 자랑하라는게 아니거든요. 지금 LA 한국 타운에 점쟁이 중 90%가 여자 전도사 출신이에요. 여자 분들이 은사를 많이 받는데, 사탄에 잘 속아요. 이브처럼. 이브 자손이기 때문에 잘 속는 다니까요. 남자들은 쫘 둔해서 덜 속는데. 여자 분들은 잘 속아요. 할 수 없어요. 이브의 자손이니까. 아담의 자손은 조금 낫긴 난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남자로 오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우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을 건 충만히 받으면 되요. 그거 받으면 다른 물질적인건 해결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12 절 **[이는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서로 위로가 되죠. 말씀들을 때 위로가 되고 찬양 할 때 위로가 되고 서로 기도 해줄 때 위로가 되고 얼굴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집에 혼자 있을 때 하고 교회 나와 있을 때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집에 있을 때는

정말 문제도 있고 그 아까 미국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뭐 그냥 밖에 나가도 문제, 집에 가도 문제. 문제 투성인데 교회 와서 이렇게 있는 순간에 이 순간 만큼은 평강이 오잖아요. 아멘? 이 순간이 길면 되잖아. 멕시코는 예배가 상당히 길어요. 세 시간이에요. 우리가 유카탄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이 사람들은 보통 두시간이고 신나면 세시간이라고. 신도 좀 나아 되는거야. 성신이 나면 되는거야 그렇지? 영화 한편을 봐도 멋있는 영화보고 나와야지 결론도 없는 영화 보고 나오면 괜히 슝스슝 한거거든. 그러나 뭔가 좀 쪽 빼 놓고서 혹 받아가지고 와야 되죠. 아멘?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 할 때도 한번 여러분 이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해보세요. 저는 찬송 꼭 그렇게 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 뭐 내 목소리 밖에 안들린다고. 내 목소리가 커서 그러는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보세요 안되나. 되요. 아멘. 여러분 목표가 저 송목사 목소리를 능가 해가지고 저 소리 안 들리게 하자. 이정도로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저는 사실 건강 유지를 이 찬양으로 합니다. 찬양 하면 이 창자가 막 운동을 해요. 아멘. 뭐 조깅 안해도 전 괜찮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창자가 움직입니다. 아멘? 찬송 할 때 기도 할 때. 이게 건강의 비결이지. 육신의 연습 약간의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되느니라. 경건의 생활. 기도 하고 찬양 하고 말씀보고 전파하고 이게 진짜 건강의 비결이지 세상 사람 따라 가지 마세요. 그건 약간 유익인 겁니다. 그들은 육체로만 살기 때문에 그저 먹을거 입을거 뭐 약 같은거 그 다음에 뭐 다이어트에 신경 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 해진다 아멘? 음식 말이죠? 사실 가릴거 없어요. 음식을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거룩하게 하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 가리다 보니까 안되는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고기를 먹으면 안된다고. 사실 고기 안 먹으면 또 안돼요. 이거를 알아야돼. 다 먹어야돼. 근데 이거를 너무 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는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 해진다.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같은 죄덩어리도 내가 니가 믿을 때 내 말씀으로 거룩하게 했는데 이 음식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말이지 이거 때문에 거룩함이 없어지냐? 아 콜레스테롤 먹으면 내가 병 걸리게 하는 그런 주님이라 하면 어떡겠어요? 반 만 믿으니까 그랬습니다. 완전히 믿고 나가면 어떡해 됩니까? 기적이 나옵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 썩어 가고 냄새 나는데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보는겁니다. 믿을 때 아는겁니다. 세상 사람은 어떡합니까? 알 때 믿을라 그러고 볼 때 믿을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되는거예요. 사람의 이성은

보고 믿고 그리고 알고 믿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 하신 것을 알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거꾸로 해요. 세상에서 배운 학문 다 버려야 됩니다. 똥 처럼 버려야 됩니다. 귀납법도 버려야 됩니다. 이걸 이렇고 이걸 이렇게 A는 B고. B는 C니까. A는 C다. 이거 버리세요. 1 더하기 1은 2라는거 버리세요. 1 더하기 1은 왜 2예요? 나는 보니까 2가 아니더라고요. 1 더하기 1은 1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꾸 물리적으로 이게 이렇게 생각 하니까 문제라고요. 숫자를 세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거는 믿으면 그대로 되는거예요. 아멘? 그대로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대로 믿으면 되리라. 되는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한번 믿어 보세요. 하나도 믿을거 없습니다 세상에. 말씀외에는. 이 교회는 서로 위로 받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 함께 모일 때. 내가 너희 두 세 사람에게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에 있겠다. 지금 이 땅에 계시는 주님은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 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위로입니다. 그래요. 때로는 내 꼴을 바라 보고. 에휴 내가 무슨 목사인가?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땐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 아이들 대학 가고 졸업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걸 보면 내가 속이 상해요. 진짜 속이 상해서 맨날 기도 한다고요. 속이 상하는데 그 다음에, 에휴 나 같은게 무슨 목사인가? 사표 낼까? 이런 생각들 때 한 두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회 와서 찬양하면 주님이 위로합니다. 우리가 뭘 잘나서 구원 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 때문에 고통을 꽤 받았다고. 16살 딸 때문에. 이 목사 자녀들이 그런 고통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야 너 목사 아들이지. 너 돈 없지? 우리가 내 줄게. 매일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상한거야 애들이. 어려서 부터.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기 싫어 하는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목사님도 아까 울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 했더니 주님께서 마침내 그 미국 목사가 처음엔 자기가 바뀌 불려고 욱도하고 막 그랬대는거야. 안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날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바뀌게 되는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서 안되는게 없습니다. 성령의 위로. 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위로는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서로 대화 할때 서로 위로를 줄 수 있죠. 인간의 위로는 절대 위로는 안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위로하심을 바랍니다. The merge of holy spirit. 성령의 위로 하심이

우리에게 오면 그게 사랑아닙니까? 그 사랑이 오게 되면 역사가 일어 나는거예요. 엇그제도 참 이혼 직전에 있는 어떤 집사님 하고 잠깐 상담을 했는데 솔직히 고백 하더라고요. 참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것 같다고. 그래서 기도 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해 가지고 자기가 그랬대요,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지 못한 것 같다니까 아내가 울더라고요. 고맙다고. 고맙다고 울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임해야 되는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아무리 얘기해도 안되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정말 이 주님의 위로를 받고 서로 위로 할 때 참 힘을 얻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13 절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에서와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서도 다소 열매를 거둘까 하여 여러번 너희에게 가려고 시도했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때는 방해 받았지만은 이 말씀이 편지가 갈기 때문에 방해는 받았지만 말씀이 편지로 왔기 때문에 거기 로마 사람들에게만 간계 아니라 우리에게도 왔죠. 하나님께서 때론 우릴 막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뭘 할려고 그러는데 막을 때가 있어요. 막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만 말 하는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까지도 이 복음을 알려 주기 위해서 잠깐 사탄을 허락해 놓은겁니다. 그래서 막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살아 가면서 막히는 일이 있을 지라도 낙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모든 일이 합력하며 선을 이룬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는 해야하지만 결국 그거를 통해서 선을 이뤄야 되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선을 우리가 상상 할 수 없는겁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한테 갔으면 거기 다소 열매 맺는거예요. 그 사람 몇 사람들 열매 맺는거야. 그러나 지금 그 때 가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가 기록 뒀기 때문에 지금 남미 쪽에 가면 다소 열매가 있습니까? 갈 때 마다 몇 백명씩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는 다소 열매 맺으러 가려 했지만은 주님께서서는 미래를 바라 보시고 2000 년 후를 바라 보시고 추수 때를 바라 보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앞을 바라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도 앞을 바라 보게 되는데 그 앞을 바라 보는 것은 말씀으로 바라 보는 거죠. 말씀으로 바라 보게 되면 그 바라 보는 것들이 실상이 되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주의 몸에 하나로 똬똬 뭉칠때 성령의 위로가 이 몸에 임하는 거예요. 이 몸에 떨어지면

안돼요. 요즘에 사탄은 꼭 교회를 안가게 만들어요. TV 앞에서 예배 드리고 헌금 보내고. 이거면 되는 줄
알아요. 뭐 하나님 앞에 안녕하세요 인사 만 하는게 아니거든요. 몸을 이루고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점 점 받아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우울증에 빠집니까? 혼자서만
하러다가. 처음엔 편안하고 좋아요. 저도 대학교 들어 가자마자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선배들이 모아
놓고 그냥 막거리를 마시게 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인사 불성 이 됐어요. 요즘엔 뭐 아이들을 물에다 막
던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죽는 애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때까지만 해도 난 미성년자 절대 불가 영화 한 번 못 보고 주일날은 교회에 새벽 부터 가가지고 도시락
들고 가가지고 새벽 부터 교회 나가서 이렇게 살았는데 등산 한 번 못 가보고. 주일날 교회 가서 사니까,
토요일날 안 놀 때니까 등산을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아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이게 뭐
세상이 막 보이는데 말이죠. 그래 가지고 도저히 못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막거리 한 잔 먹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헤어졌어요. 아이 처음에 교회 안 나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나 그렇게 편한거 처음 느껴 봤어요. 권사님도 웃으시네. 안 나가신
경험이 있으신가? 그렇지 않을텐데.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가니까 그렇게 편해요. 첫 째 늦잠을 잘 수 있고.
어떻게 편한지 몰라요. 속는거야. 육신은 편한데 점점 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 손에 들어
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 가지고 나 만큼 죄 지은 사람은 없을거야. 따로 오세요. 내가 무슨 죄 짓고
살았는지 알고 싶으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떠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요즘에 한국 사람들 까지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 여기도 보면 미국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는
분이 있어요. 한국분이. 그게 bother 받기 싫단 얘기에요. 서로 bother 하고 bother 받고 시험 보고
그러면서 서로 부딪혀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말이죠 회개하고 이래 가지고 하나가 되는거지. 어떻게 여기
다 죄인들만 오는 자리인데 여기서 의인이 어딴습니까?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미국
사람이. 나는 교회에 위선자들이 많아서 못 나오겠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란가하면 아 그러세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에 딱 한 자리가 남았는데 당신 앓을 자리 딱 하나 남아 있다고. 당신도 위선자다
이거죠. 똑같다 이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끼리 죄인 끼리 모여서 부딪히고 서로 깨지고 부서지고 또
오해하고 울기도 하고 서로 욕하기도 하다가 회개 하고 이래가지고 정이 드는 거죠. 고은 정 미운 정 다
드는게 교회지. 완벽한 사람이 오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기 싫은 사람 있을 때 그건 뭐예요? 내 안에

그게 있는거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이질 때 까지 서로 보기 싫어 하다가 싸우다가 회개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때가 되면 붙들고 울고 그러는거지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 여긴 내가 올 곳이구나. 속에는 별 생각 다 하는데 겉으론 아주 점잖아
 보이고 그러고 앉아 있으면 처음 온 사람들이 야 여긴 내가 올 데가 아니구나. 사실 그 사람이 올텐데.
 죄인이 올 자리에 내가 여기 올 데가 아니구나 하고 갑니다. 그건 누구 손해? 하나님 손해예요.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나도 이런 사람이였습니다. 이런 죄인을 이런 간증을 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누가 처음 보게 되면 붙잡고 기도를 해줘야 해요. 요즘에 그런 분들
 있어요 우리 교회에. 붙잡고 기도해 주는거예요. 성령이 인도 해주시는대로.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끝나고 좀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피아노 연주자에게 말해 가지고
 계속 반주 좀 하라고 하세요. 은혜가 넘쳐야 돼. 찬송가로 계속 넘쳐야 돼. 교회는 계속 넘쳐야 돼. 그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도 계속 반주자는 찬송을 해야돼요. 피아노 반주로. 이게 성령의 위로 하심이
 흐르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 가지고 계속 충만한 가운데 식사하도록. 이렇게 해야만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4 절 15 절만 읽겠습니다. .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나 내가 다 빛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 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여러분 이 로마서가 교리서기 때문에 딱딱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예화도 들고 그러는건데 지금 여러분 이 빛 진 자가 뭘니까? 빛 진 자는 뭘 꺾은 사람 입니다. 꺾기로
 하고 꺾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거저 받았는데 이게 꺾은 겁니다. 아멘?
 꺾거예요. 이건 빛 진거예요. 그러니까 여길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을 보면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가장 잘살고 물질 문명이 발달한 지식인들이나 낫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나 똑같다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얘기죠.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 똑같은 얘기에요 반복한 얘기 입니다. 우리가 멕시코 갈때 마다 특히 유카탄 가게 되면 마야 사람들
 말이죠. 뱀을 섬기던 사람들 그저 얼굴 보면, 그냥 그 사람들은 목이 없어요. 왜 목이 없는가면 피라미드
 짓기 위해서 그냥 이 바윗돌을 지고 다녀 가지고 이고 다녀 가지고 이게 눌러 가지고요 유전 인자들이
 완전히 바뀌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목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나도 목이 짧지만 거기 가면 나는 목이
 긴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셔츠를 못 입어요. 보면 이게 컬러가 이렇게 축 쳐져 가지고 못 입어요. 목이

긴 미인들은 말이죠 미남 미녀들은 딱 입어도 짝 서 가지고서 이쁘데 나같은 사람은 이게 와이 셔츠에 넥타이를 매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 목이 짧아 가지고. 나도 별로 미남이 못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목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거를 이고 다녔는지 여기가 평평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물건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다 놓고서 남자들도 이려고 그냥 걸어 가요. 그 다음에 맥주 병을 이렇게 놓고선 말이에요. 머리에 올려 놓고서 춤을 춰요. 그래도 안 떨어져요. 이게 너무 평평해 가지고. 2000 년 동안 그 마야, 마야라는게 사탄을 섬기는거예요. 그 피라미드 밑에서 사람 피 흘려 가지고 마귀에게 제사 드리는. 2000 년 동안 계속 그랬던 사람들이예요. 이 얼마나 야만인들입니까? 근데 우리를 그리로 보낸거예요. 빛 쬐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 하다 보면 빛 갠거예요. 빛 갠아야 됩니다. 홀이라도 안 갠으면, 옛날에 성경에 홀이라도 홀이가 뭔지 몰라도. 완전히 안 갠으면 결단코 나오지 못 하리라. 우리가 다 갠아야 됩니다. 우리를 미국에 왜 보냈겠습니까? 우리 빛만 진 사람들이예요. 미국 선교사들 와서 그렇게 피 안흘렸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빛을 쬐기 때문에 빛을 갠으러 왔는데. 빛은 안 갠고 더 빛만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도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예요. 우리는 모든 종족에 빛 쬐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쳐라는데 뭔가하면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 빛을 갠란 얘기에요. 빛을 갠으라. 아멘? 이미 우리 와 있어요. 와 있기 때문에 여기 모든 민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원목사님이랑 몇분이 이제 토요일 마다 여기 교회에서 전도 하니까 원하신 분들은 목사님한테 신청하세요. 아멘? 빛 좀 갠으세요. 좀 빛을 갠아야지 밤에 주무실때 발을 쭈 펴고 주무실텐데 빛도 안갠았는데 다리를 쭈 펴고 주무신다는게 그거 이게 문제가 있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갠고 특히 잠 안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빛을 갠으세요. 빛을 갠고 쭈 푸욱 주무시길 바랍니다. 다 빛 진 자로라. 모든 종족의 인간에게 빛 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열어주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빛을 갠을 때 얼마나 후련 합니까? 그 후련함이 기쁨으로 오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15 절 보면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이 로마 사람들 얼마나 포악한 사람들이예요. 그런데도 항상 사도바울은 준비가 되었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래요, 이 멕시코 사람들이 쭈 착하죠. 굉장히 착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전할 때는 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릴 보고 예루살렘에 가라고 할 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하면

말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벌써 전도자가 6 명이 나왔어요. 거기서 구원 받고 지금 바이블 스쿨 졸업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사백 팔십만 유대인들을 전도하로 나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뭐란가 하면은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 젊은이들이 수백 명이 주님을 영접해 너무 많이 영접해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거예요. 이게 뭐니까? 때가 다 된거죠. 우리 같은 올리브 나무도 그냥 젖붙여져서 살았는데 진짜 올리브 나무는 얼마나 잘 살겠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평생을 다윗왕때부터 아브라함때부터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야, 예수님이란걸 알면 생명 내놔요 이 사람들은. 소위 요즘 말로 개떡같이 믿지 않아요. 찰떡 같이 믿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한번 믿었다면 생명을 내놉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가 하나님이란걸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걸 믿으면 그럼 이건 난리 나는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몰라서 그렇죠. 그러나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가 서서히 떨어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젠가 우리가 기도 할때 그때 우리가 그냥 즉석에서 헌금해 가지고 \$300 헌금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 위해서 헌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을 구원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랬죠?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이 뭐니까? 복음 전하는겁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투자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구원 받으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한다. 제가 몇 년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담을 주셨어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첫 째는 유대인에게요 이런 복음이 나오지만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서 가지고 이 Jews for Jesus 에 가 가지고 이 분들 초청 해가지고 집회를 한번 했죠? 우리가 코비나에서. 집회를 하고 지금까지 특별한게 없었지만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주님이 역사 하시면 저희가 유카탄에 간 것 처럼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도와라 그러면 또 가야죠. 예루살렘에도 가야죠. 저는 사실 예루살렘에 안 갈라고 그랬어요. 관광 하는거 안 가려고 하는데, 주님 오실 때 휴거 됐다가 주님 오실 때 같이 오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죠.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들어 봤는데 지금 사람들은 성경도 안 읽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들이 이 예수를 받아 드린다는거예요. 왜냐하면 뭐 언제 어디가다 차 타다가 자폭 테러단에서 죽을 지도 모르고.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돈도 싫다 다 싫다 지금. 다 싫고 지금 평강이 평화가 있음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막 그냥 그 팔레스탄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 잦아요. 막 미움과 불안과 이게. 이

젊은이들이 그냥 이려고 사는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잠자리가 좋겠습니까? 옛날 6.25 때 반공호. 어릴 때 기억 나요. 폭격 나면 숨으라고 말이죠. 그런 곳에 사니까 항상 증오로 차있고 그 다음에 평강이 없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니까? 평강의 복음. 용서의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람들이 받아 드린다는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수백명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거 이걸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심히 가까워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 위해서 기도 해야되고 절대로 이들을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이들을 축복 해야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다 축복 하고 너를 저주 하는 자는 한사람도 저주 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 했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는 가장 좋은 것은 뭐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도자들을 서포트 해주고 이렇게 하는게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래도 멕시코 남미를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까지 바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 한 일인지요. 이 주신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되고 지금까지 선교가 계속 된 것은 주님이 문을 열었을 때 그냥 간 것 밖에 없어요. 간 것 밖에 없어요. 다른거 한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간거예요. 돈 한 푼 없이도, 간다 그러면 돈을 주셨으니까. 간 것 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 하시나. 아이 나는 경비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 하면 아무데도 못 가. 그러나 내가 정말 기도 할 때, 주님이 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야? 주시겠다는거예요. 아멘?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린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은 어떤 환경도 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미국 목사님이 군대 연장까지 받았는데, 어떤 분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정부까지도 cancel 시키는 그런 하나님인데 아멘?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 기도하세요. 아멘? 바꿔 달라고. 우리 전도사님도 권사님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아멘. 왜 안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 하시라고요. 그거 accept 하지 말아요. 능력을 accept 하고 현실은 accept 하지 말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서 밀쳐야 본전이에요. 손해 볼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기도함으로 참 능력을 체험 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안에서 이루어짐을 통해 증거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바울 통해서 주신 로마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사도바울의 복음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주시기 위하여 로마에 가는 것을 주님이 일시 막으셨지만 또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여러 나라에 전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또 예루살렘 까지도 바라 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6 명의 사람이 사백 팔십 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역사.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12 명의 제자를 통하여 전세계를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 가장 적은 숫자인 이스라엘을 택하여, 숫자가 적기 때문에 택하여, 적은 숫자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 주님. 가장 작은 교회를 택하시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기도 하며 쉬지 않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오늘 교회 오면서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을 다 생각 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응답받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찬양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음껏 소리 높혀 즐거운 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는 찬양이 되게 해 주시고 하늘의 보좌를 보며 우리가 마음껏 주님 한분을 바라 보며 찬양 하는 우리가 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에 모든 만물들과 함께 찬양을 드림으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며 주께 영광돌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합나이다 아멘.